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6〉

諸賢頌句 (제현송구) ③

聽教參禪逐外尋 未嘗回首一沈吟
청교참선축외심 미상회수일침음

가르침을 듣고 선을 참구한다하여 밖으로 찾아 헤매다가 일찍이 머리 돌려 한번도 깊이 음미하지 않나니

眼光欲落前程暗 始覺平生錯用心
안광욕락전정암 시각평생착용심

눈빛 떨어질 때에 이르러 앞길이 캄캄해짐에 비로소 평생 헛공부 한줄을 아누나

佛眼禪師十可行中三節
불안선사십가행중삼절

禮拜
예배

禮佛爲除憍慢垢
예불위제교만구

부처님께 예를 올림은 제 마음의 교만한 때를 벗겨내기 위한 것

由來身業獲淸涼
유래신업획청량
玄沙有語堪歸敬 是汝非他事理長
현사유어감귀경 시여비타사리장

夜靜更深自誦經 意中無惱睡魔惺
야정경심자송경 의중무뇌수마성

밤은 깊어 고요하매(가만히 마음으로 경을 외나니) 의식 가운데 번뇌가 없고 정신은 더욱 맑고 또렷하다

雖然暗室無人見 自有龍天側耳聽
수연암실무인견 자유용천측이청

어두운 방에 아무도 보는이 없어 비록 그러하나 스스로 용과 천이 있어(내가 알고 천룡이 알고 법계까지도 다) 귀 기울여 듣는도다

靈巖石刻 勉僧看病
영암석각 면승간병

四海無家病比丘 孤燈獨照破床頭
사해무가병비구 고등독조파상두

사해에 집없는 병든 비구여 외로운 등불만이 홀로 병상머리 비추누나

寂寥心在呻吟處 粥藥須人仗道流
적료심재신음처 죽약수인장도류
病人易得生煩惱
병인이득생번뇌

고요하고 쓸쓸한 마음엔 신음뿐이나

"예불공덕은 몸으로 지은 죄 씻어내고 마음의 교만한 때 벗겨 내기위함이니"

예불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지은 업이 맑게 씻어 지도다

현사(불경)에 이 말씀있으니 귀의 공경토록 하라 이는 너의 일이요 다른이의 일이 아니니 이치를 받듦음이 오래일러라.

經行
경행

石上林間鳥道平 齋餘無事略經行
석상림간조도평 재여무사약경행

바위 위 수풀사이로 오솔길(조도는 새나 다닐수 있는 아주 좁디 좁은 길임)이 다닐만하다 심신을 재계하고 달리 할일 없거든 가볍게 거닐어라

歸來試問同心侶 今日如何作麼生
귀래시문동심려 금일여하작마생

돌아와 시험삼아 마음벗(마음 공부하는·도반 또는 자신의 마음자리)에 묻노니 오늘은 어떠하며 무엇을 했느냐고.

誦經
송경

죽·약은 사람에게 구하되 도의 흐름에 의지하라.

병든이 번뇌 일어나기 십상이니

健者長懷惻隱心
건자장회측은심
彼此夢身安可保 老僧書偈示叢林
피차몽신안가보 노승서게시총림

건강한 이여 길이 측은심 버리지 말라

피차 꿈같은 몸 어찌 가히 보전한다 하랴 노승이 글로 지어 총림에 보이노라

眞淨文禪師頌
진정문선사송

削髮因驚雪滿刀 方知世月不相饒
삭발인경설만도 방지세월불상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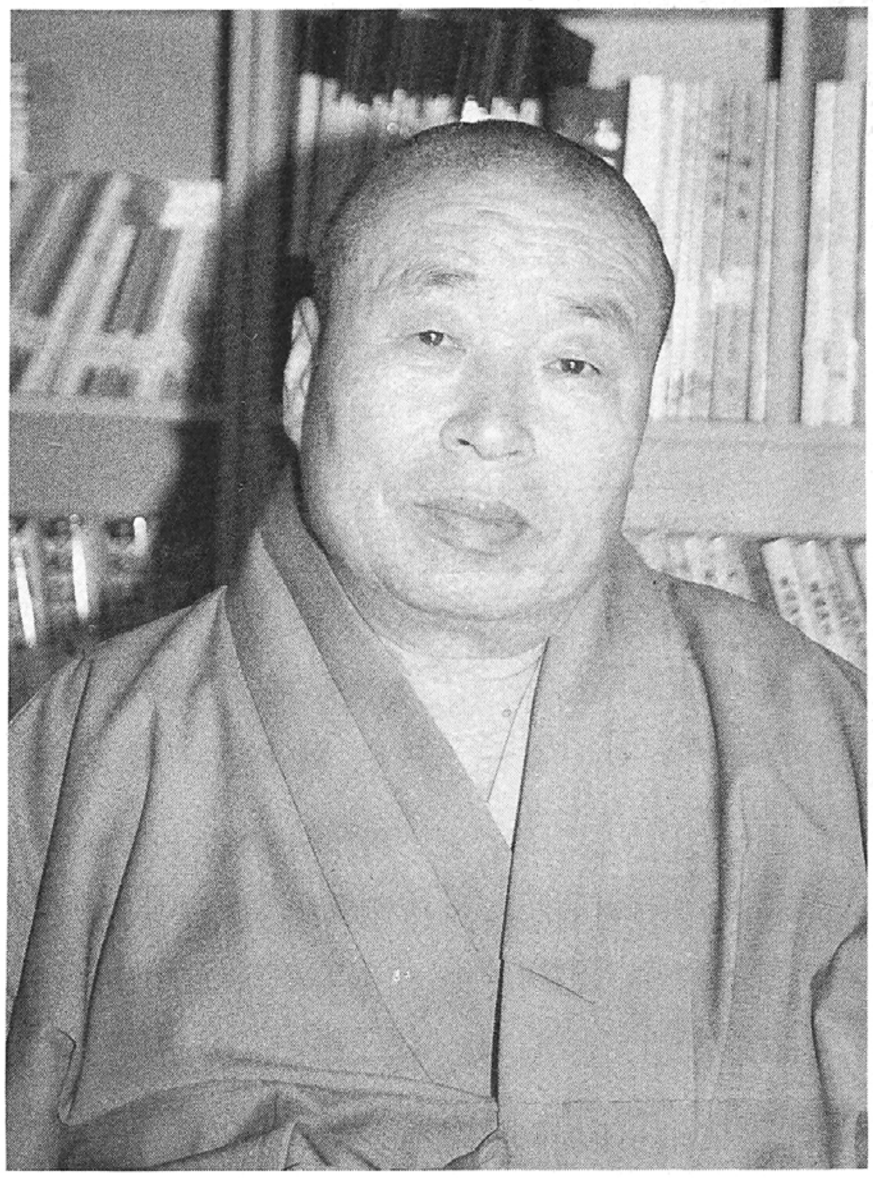
머리를 깎다가 삭도에 눈이 수북한것(흰머리가 수북히 떨어짐)보고 놀라노라

바야흐로 세월이 넉넉지 않음을 알겠도다

龍眼

지 상 법 석

"입으로만 사홍서원 외고



혜정스님 〈문수사 주지〉

약력
- 봉암사에서 청담스님 은사로 득도
- 58년 해인사 강원대교과 졸업
- 동화사 주지 역임
- 조계종 종회의원 역임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지런 하다고 해도 흐르는 시간의 부지런함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새 봄기운이 이 산사의 시방(十方)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흘러 찬기운을 따사롭게 바꾸고 나뭇가지마다 한바탕 봄의 잔치를 준비하는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저토록 소리없이 제할 일을 해 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왜소하고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해야할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부들은 가정에서 해도해도 일이 끝없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매일매일 일에 파묻혀 살지만 그역시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에 비해 영장일 수 있는 것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물이나 제 목숨 잇기 위한 일을 하겠지만 사람은 먹고 사는 일 말고도 여러 일을 하면서 인간집단의 발전을 더해 가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수행정진입니다. 그거야 스님네들

산비탈 잡목처럼 無常觀 수행자세로 탐욕·집착 버려야지 '내가 최고' 앞세우면 최하 중생으로 전락

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님이건 재가불자건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수행정진하는 자세를 놓아서는 안됩니다. 저토록 부지런한 시간의 흐름 위에 인간의 생명이란 얼마나 유한하고 나약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도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닦고닦아 시간보다 영원하고 우주보다 무한한 대자유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이생에서 해야할 가장 큰 일인 겁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 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역대 조사들은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대자유인이란 바르 부처를 이룬 각자(覺者)를 뜻하는 것인데 모든 중생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러면 그 각자의 자리로 이르는 법은 무엇이냐. 이 또한 부처님과 누대의 조사님들이 걸어간 길이 있으니 그리 절망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현실이라는 고해(苦海)에서 헤매이고 있을 따름이니 이 고해를 벗어 나겠다는 매몰찬 의지가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의 자리로 들기 위해서 수행정진을 해야 한다는것을. 그러면서도 오늘 바쁘고 내일 힘들어 수행정진을 미루고 미루며 흐르는 시간에 이끌려 가고 있을 뿐입니다. 더러는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고 염불도 하며 수행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잘 안된다고 푸념을 늘어 놓기 일쑤인게 중생심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정진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서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아직 못이룬 중생들마저 구하겠다는 정신, 우리가 늘 입버릇같이 외우는 사홍서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노라고 서원하고 번뇌를 모두 끊겠다고 서원하고 법문을 다 배우겠다고 서원하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고 서원하는데서 우리의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과 우주를 꽉 채우는 서원이 없이는 수행의 행위가 현실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법회에 와서 입으로만 사홍서원을 그럴듯하게 외우고 그 의미를 알기는커녕 내가 무엇을 서원했는지조차 모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불성(佛性)이 있다고 했는데 왜 중생자리에만 머물러 있느냐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부처님같이 누대의 조사님들 같이 정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산길을 달리고 들판을 헤메이고 바위 끝에 앉아 참선을 하고 바늘로 몸을 찌르며 잠을 털어내던 그 처절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부처의 자리를 생각하는것도 큰 도둑놈의 심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몸을 던져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갖는데서 참다운 정진이 시작됩니다.

간혹 요즘시대가 말법시대라서 중생의 근기가 약해져 참다운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변명입니다.우리가 밝혀 알아서 부처의 자리로 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어느 자리에 말세가 있고 말법이 있으며 상생이 있고 하생이 있습니까. 괜시리 경전의 의미를 왜곡되이 알고 부처님 법을 폄하하는 무리들의 요설

제2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96 어린이날 기념

부처님이 최고야!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치루어졌던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부처님 그림 그리기에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시: 1996년 5월 5일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
- 대상: 전국의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시상: 종합 대상 1명,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 입선 150명, 특별상(단체상), 각 부문 상장 및 상품
- 참가비: 3,000원 (2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2,000원)
- 준비물: 도시락, 크레파스나 그림물감, 화판
- 참가자전원 목아박물관 무료입장, 기념 티셔츠, 호신불, 동화책 등 기념품 증정(선착순 1,000명)

문의전화: 월간「불광」 02) 420-3200
목아박물관 0337) 85-9952~4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미술인협회/ 주최: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후원: 봉축위원회, 불광사 불광법회, 재단법인보덕학회, 불교TV, 불교방송,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도솔회, 월간 동쪽나라, 도서출판 단이슬